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21

Special Feature /
'에이도스'를 찾아서
한국 추상회화의 얼굴 7

Artist /
카타리나 그로세
우주적 스펙터클의 '공간 회화'

Hot People /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

Art Market /
갤러리 핫 초이스
영 아티스트 81

'73

RHEE SANG &
WOOD



Hottest Artists 81

강강환 강예신 고상우 광철안 권능 권민호
 권세진 권인경 김경태 김도훈 김명문 김명진 김미영
 김지희 김혜나 나난 남지행 노경민 노은주 마이큐
 민성홍 박광수 박노완 박민하 박형지 배혜음 빈우혁 서상의
 송승은 안두진 안상훈 안준 안지산 양정욱
 에디강 우국원 우태경 윤지영 이광호 이동훈 이두리 이미정 이완 이우성
 장재민 전재은 전현선 정소영 정수정 정영도 정현태 조은정 조종성 지지수
 이유진 이은새 이계석 이환권 임동승 장광범 장미리아
 허보리 허수연 허수영 허우중 허찬미 홍장표

갤러리가 뽑은 영 아티스트

불타는 미술시장! Art는 마켓의 '영 파워' 아티스트를 찾아 나섰다. 오늘의 한국 미술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얼굴'은 누구인지, 컬렉터를 열광시키는 작품의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 다이내믹한 젊은 지형을 그려낸다. 이 매머드 특집에 국내 주요 갤러리 34곳이 가담했다. 이들이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은 총 81명의 '뉴 라이징 스타' 라인업을 공개한다. 최신 버전의 약력, 메인 작품 이미지와 해설, 소장처, 작품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었다. 지금, 동시대 마켓의 핫 트렌드로 함께 뛰어들자!

핫 초이스, 갤러리 34곳

Art는 12월호 특집으로 <Hottest Artists 81>을 기획했다. 내일의 한국 미술시장을 이끌어 나갈 '영 파워' 아티스트를 소개한다. Art의 야심 찬 특집에 전국의 주요 갤러리 34곳이 열렬히 화답해 주었다. 그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313아트프로젝트 가나아트 갤러리2 갤러리가이아 갤러리기체 갤러리나우 갤러리뫼 갤러리바톤 갤러리조선 갤러리조은 갤러리현대 갤러리SP 국제갤러리 금산갤러리 리서울갤러리 리안갤러리 아뜰리에아키 아라리오갤러리 아트사이드갤러리 아트스페이스3 예화랑 우손갤러리 웅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이길이구갤러리 이유진갤러리 이화익갤러리 인디프레스 조현화랑 지갤러리 표갤러리 학교재갤러리 휘슬 PKM갤러리. Art는 이들에게 물었다. 동시대 아트마켓에서 떠오르는 작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컬렉터를 매혹하는 이들 작품의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인가? Art는 이들이 최근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은 이머징 아티스트 1~3인씩을 추천받았다. 연령은 20~40대 젊은 작가로, 만 19세(2002년생) 이상 49세(1972년생) 이하다. 전속 계약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반영해 컬래버레이션과 아트페어 출품까지로 추천 대상을 활짝 열어놓았다. 올해 화랑미술제, 아트부산, 키아트, 대구아트페어, 아트021상하이, 아트마이애미 등 국내외 우수 아트페어에 출품된 따끈따끈한 '신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컬렉터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홍행 보증 수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각 작가의 최근 시장 거래가도 입수했다.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디서 어떤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표로 제공하는 알짜배기 특급 정보다. 여기, 총 81명의 '젊은 기수'가 모였다. 톡톡 튀는 개성과 강렬한 에너지가 응축된 작품을 엄선해 다이내믹한 지상전을 지금 이곳에 펼친다. 컨템퍼러리아트의 지형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시장의 젊은 기류를 확인하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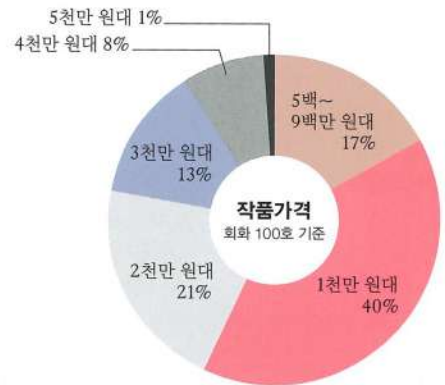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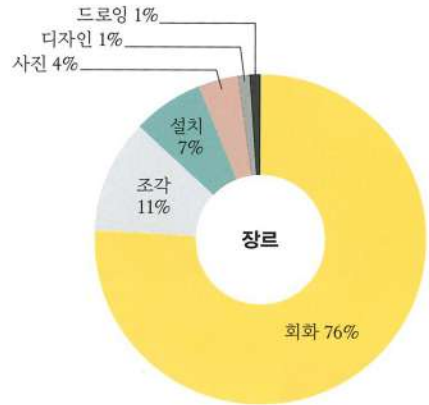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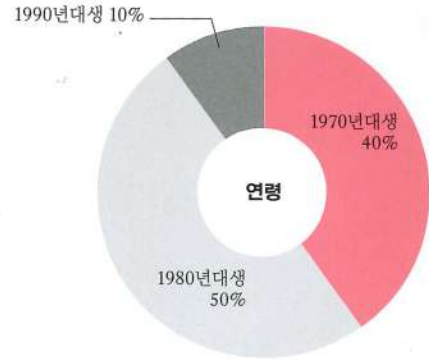
라인업, '뉴 어라이벌즈'의 성분

이번 특집은 작가와 작품 해설에 초점을 맞춰 코멘트 형식으로 구성했다. 1페이지당 작가 3명씩 화보가 이어진다. 해당 작가의 메인 작품 이미지와 함께 이름, 출생 연도, 작업 특징, 최신 이력, 주요 소장처, 최근 거래 내역, 작품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작가 이름의 색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 남성 작가는 파란색, 여성 작가는 분홍색이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21세기 한국 미술계에 어떤 새로운 인적 지형도를 그려낼까? Art는 작가 81명의 성분을 총 6개의 키워드로 분석했다. 첫째, 연령. 나이대로는 1972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1970년대생 32인, 1980년대생 41인, 1990년대생 8인. 1980년대생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현대 사회의 '뉴 라이징 세대'인 1990년대생의 두각이 아트마켓에도 서서히 나타난다. 둘째, 성별. 남성 45인, 여성 36인으로 남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미술시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작가가 득세하지만, 여성 작가의 작품이 저평가되던 과거보다 '우먼 파워'의 약진이 돋보인다. 셋째, 장르. 회화 62인, 조각 8인, 설치 6인, 사진 3인, 디자인과 드로잉 각 1인으로 회화의 강세가 이어진다. 하지만 장르의 경계가 무너진 오늘날, 이 구분은 차차 효력이 사라지리라 예상된다. 넷째, 학력. 홍익대가 19인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화여대가 6인씩, 중앙대 5인과 숙명여대 3인순이다. 석사는 이 중 58인만 취득했다. 대학원은 홍익대 13인, 한국예술종합학교 8인, 서울과학기술대 5인으로 집계된다. 박사까지 진학은 1인뿐이며, 유학은 학부에 14인, 대학원은 16인이다. 다섯째, 개인전 횟수. 개인전은 1~5회 25인, 6~10회 35인, 11회 이상 19인, 20회 이상 2인으로 10회 이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 작품가. 가격은 장르, 사이즈,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Art는 가격대별 비율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회화작품', '100호당 가격'을 기준 삼았다. 우선 1천만 원대가 40%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서 2천만 원대 21%, 500~900만 원대 17%, 3천만 원대 13%, 4천만 원대 8%이며, 5천만 원대는 단 한 명이다.

작품 경향, 차세대의 강편치!

동시대아트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81인의 창작 스타일은 무엇일까? 젊은 작가는 오늘의 풍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주제, 소재, 방법론으로 자신의 언어를 창안할까? 차세대 미술가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으면 시대적 경향까지 파악된다. 이들의 작품 특징은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서브컬처.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는 미술의 오랜 단골 소재다. 그중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작가의 베스트 프렌드.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주인공을 캔버스에 소환해 미술사의 시그니처 도상과 '짤뽕'시키거나 거친 붓질로 낯설게 변형한다.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자아를 투영하고, K-pop 문화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② 장르 실험. 신기술과 낯선 재료는 작가의 유쾌한 놀잇감이다. 시멘트와 안료를 혼합해 그린 회화, 전깃줄과 나일론을 뜨개질하듯 엮은 조각,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300장의 이미지를 1장에 압축한 사진, 타투이스트와 협업한 설치... 또한 21세기 극사실주의와 동양화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추상화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등 장르의 정체성 확장을 작업의 미션으로 삼는다. ③ 사회 이슈. 현대 사회의 첨예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작가도 다수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MZ세대 컬렉터들은 작업의 외적 매력을 넘어서 예술가의 가치관에도 열렬히 반응한다. 작가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린다.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 화두인 지금, 동물의 생존권과 환경 오염이 젊은 작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낡은 시대의 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의 주체성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이제는 빠트릴 수 없다. ④ 개인의 미시사. 관객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술, 작품과의 정서적 교감은 단연 '스테디 셀링' 포인트다.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보편적인 고민거리, 무의식의 탐색은 시공을 막론하고 작가들의 꾸준한 연구 대상이다. ⑤ 팔방미인 예술가. 연예인, 싱어송라이터, 디자이너도 미술시장 '뉴 페이스'로 당당히 정착했다. 이들은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표현법으로 아트월드를 더 크게 넓혀 나간다.





왼쪽 · 안준 (One Life #001) HDR 울트라크롬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52.4×101.6cm 2021_작품 문의는 금산갤러리.
오른쪽 · 안지산 프로필, 아래 · 양정욱 (등산에서) 혼합재료 220×135×170cm 2019_갤러리현대에서 작품당 1,000만 원-1억 원대.
오른쪽 페이지 위 · 안지산 (구름 수집) 캔버스에 유채 218×291cm 2019_2018년 조현화랑 첫 개인전에서 대형 작품부터 소품까지 모두 판매. 아라리오갤러리에서 30호 기준 600만 원.
아래 · 우국원 (Dumbo) 캔버스에 유채 100×80.3cm 2020(왼쪽), (I Hate Morning)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2020 (오른쪽)

안지산 b.1979

불안이 스멀스멀 안지산은 인간의 불안한 감정을 회화 언어로 번역한다. 작가는 네덜란드에서 먼저 데뷔해 7년간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한국 아트씬에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좁은 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베틀로 특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배치, 어둡고 음습한 배경으로 말로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시각화한다. 종이를 오려 만든 모형으로 재현할 대상을 무대에 미리 배치한 다음, 원하는 장면을 여러 번 시연하면서 특정한 상황을 조성하고 캔버스에 옮겨낸다. 그는 최근 실내를 배경으로 벌어지던 스토리를 외부로 확장했다. 하늘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구름과 그 구름이 모여 형성된 폭풍을 주제로 인간의 태생적 불안에 접근한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재현한 구름을 소재로 선택해 재현을 향한 화가의 욕망을 드러냈다. 부산 출생. 아라리오갤러리, 조현화랑, 자하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구하우스 등 주요 미술관에 작품 소장.



38

안준 b.1981

동중정(動中靜)의 찰나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과부터 충격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결, 무너지는 돌무더기까지. 안준은 인간의 눈으로 인지하기 힘들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사진으로 포착해 왔다. 현실임에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장면으로 세상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초월성에 접근했다. 작가는 말한다. “세상이란 아득한 환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부딪치고 교차하는 곳이다.” 안준은 영국의 사진 잡지 『브리티시저널오브포토그래피』와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주목해야 할 작가에 선정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아트마켓의 블루칩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미술사학과 및 파슨스디자인스쿨 사진학과 석사 졸업, 홍익대 사진학과 박사 졸업. 금산갤러리, 홍콩 만다린오리엔탈호텔, 취리히 크리스토퍼귀갤러리, 뉴욕 킵스갤러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안나노바갤러리 등에서 개인전 개최.

양정욱 b.1982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아티스트 양정욱. 작가는 일상에서 포착한 소소한 단면을 글로 남기고, 이를 함축하여 시각적으로 연출한다. 작가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 또는 “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서 탄생한 가상의 이야기”를 설치작업으로 치환한다. 나무, 실, 모터, 조명, 일상 사물 등을 재료로 삼아 깜빡이는 빛, 느긋한 움직임을 키네틱작품으로 제작한다.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2013),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어떤 잠을 주무셨나요>(2014), <그는 선이 긴 유선 전화기로 한참을 설명했다>(2016) 등의 서정적인 작품명이 특징이다. 가천대 조소과 졸업. OCI미술관, 갤러리현대, 동탄아트스페이스, 두산갤러리 뉴욕, 갤러리소소 등에서 개인전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작품 소장.



